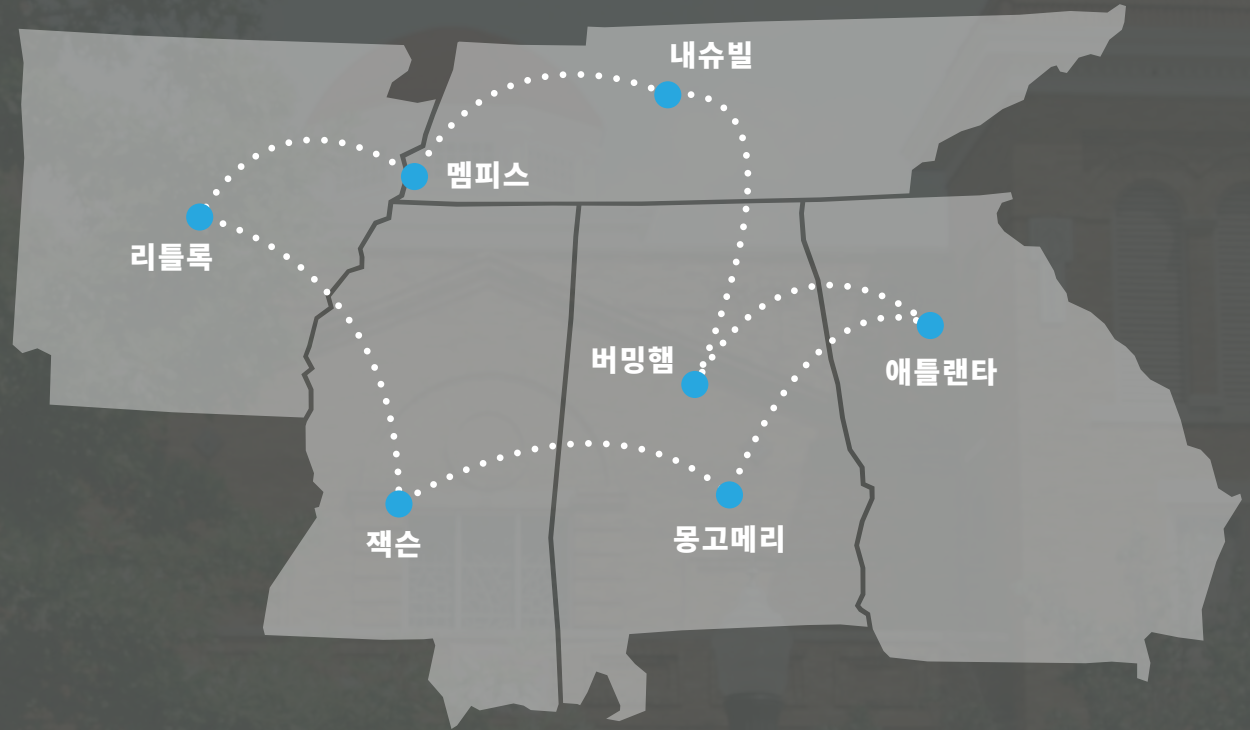


INSIDER
GUIDES
from GoUSA

남부의 시민권 이야기

테네시주 - 아칸소주 - 미시시피주 - 앨라배마주 - 조지아주

남부의 시민권 이야기



테네시주 내슈빌 출발, 헤닝과 멤피스 도착	3시간 3분/341km
테네시주 멤피스 출발, 아칸소주 리틀록 도착	2시간 2분/221km
아칸소주 리틀록 출발, 미시시피주 머니, 섬너 그리고 잭슨 도착	4시간 16분/422km
미시시피주 잭슨 출발, 앨라배마주 셀마와 몽고메리 도착	3시간 59분/397km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출발, 터스키기와 조지아주 애틀랜타 도착	2시간 17분/260km
조지아주 애틀랜타 출발, 앨라배마주 애니스턴과 버밍햄 도착	2시간 9분/237km
앨라배마주 버밍햄 출발, 스코츠보로와 테네시주 내슈빌 도착	2시간 40분/308km



테네시주 내슈빌

테네시주 내슈빌

1일 차

시민권 트레일은 14개 주에 걸쳐 100곳 이상의 장소를 망라하며 미국 시민권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이야기는 5번가의 울워스(Woolworth on 5th) 레스토랑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1960년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비폭력 운동인 내슈빌 시트인(sit-in, 좌석 점거)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당시 백인 전용이었던 런치 카운터에 흑인들이 앉아 저항을 표했던 울워스는 근사한 모습으로 새단장해 현재 영업 중입니다. 상징적인 런치 카운터에 앉아 있던 참가자의 10가지 행동 규칙(Ten Rules of Conduct)을 읽어보고 내슈빌 공립 도서관(Nashville Public Library)의 인권실(Civil Rights Room)을 찾아 흑인 인권 운동 역사도 알아보세요. 당시 벤 웨스트(Ben West) 시장이 마침내 인종차별의 비도덕성을 인정하면서 평화 행진이 끝나고 공공시설에서의 인종차별 종식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역사적 장소 데이비스 카운티 법원(Davidson County Courthouse)도 방문해 보세요. 바로 옆에는 자유의 기수(Freedom Rider), 거리행진과 시인 등 내슈빌의 인종차별 철폐를 이끌어낸 역사적 사건을 그린 콘크리트 벽화 위트니스 월(Witness Walls)도 있습니다.

숙박: 테네시주 내슈빌

테네시주 내슈빌 출발, 헤닝과 멤피스 도착

●●●●●● 3시간 3분/341km

2일 차

내슈빌을 떠나 1시간을 달리면 알렉스 헤일리 박물관 및 자료관(Alex Haley Museum and Interpretive Center)이 있는 헤닝(Henning)에 도착합니다.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어린 시절 집이기도 하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를 기리는 박물관에는 실물 크기의 노예선 모형이 있습니다. 1시간을 더 달려 가면 미시시피강(Mississippi River) 유역의 멤피스 다운타운에 도달합니다. 노예 탈출에 사용된 지하 철도에 속했으며 현재는 슬레이브 해이븐 지하 철도 박물관(Slave Haven Underground Railroad Museum)으로 알려진 버클 이스테이트(Burkle Estate)로 가보세요. 노예 경매 광고, 노예 무역의 역사와 당시 인종 분류를 보여주는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자유로운 북부 주로 실어갈 배가 오기 전까지 흑인 노예들이 몇 시간, 며칠씩 숨어 지냈던 어두운 지하실을 꼭 찾아보세요.

숙박: 테네시주 멤피스

3일 차

메μφ이스의 인권 역사를 알아보려면 먼저 로레인 모텔(Lorraine Motel) 근처에 있는 국가 인권 박물관(National Civil Rights Museum)부터 찾아야 합니다. 로사 파크스(Rosa Parks)가 버스 좌석 양보를 거부함으로써 인종차별에 도전한 사건, 짐 크로(Jim Crow) 흑인 차별 법안, 14세 소년 에밋 킬(Emmett Till)의 살해,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있었던 평화 거리행진 등 흑인 인권 운동의 핵심 사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1968년 4월 흑인 인권 운동의 아버지 마틴 루서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가 발코니에서 암살된 로레인 모텔 306호를 둘러봅니다. 메μφ이스에 왔다면 과거 이곳 흑인 문화의 중심지였고 지금은 라이브 음악과 맛집으로 넘쳐나는 엔터테인먼트 중심지인 빌 스트리트(Beale Street)를 놓치지 마세요. 스탱스 미국 소울 음악 박물관(Stax Museum of American Soul Music)에서는 가스펠 음악부터 신나는 행진곡까지 인권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던 음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탱스 레코딩 스튜디오(Stax Recording Studios)는 오티스 레딩 (Otis Redding), 아이작 헤이즈(Isaac Hayes) 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티스트를 발굴해 블루스와 가스펠에 목소리를 입히고 스타덤에 올린 곳으로 유명합니다. 메μφ이스 인권 역사의 필수 코스로는 1800년대 말 해방된 노예들이 자신과 같은 흑인들을 위해 지었고 오랜 세월 인권 운동 지도자 회합의 장소로 이용되었던 유서 깊은 빌 스트리트 침례교회(Beale Street Baptist Church)가 있습니다. 포 웨이(Four Way)에서는 시골식 스테이크, 메기 샌드위치, 순무청, 고구마 파이 등 푸짐한 소울 푸드를 드셔보세요. 1940년대부터 영업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은 인권 운동가들이 모이는 장소로 유명했으며, 스탱스 레코딩 스튜디오가 가까워 B.B. 킹(B.B. King),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 같은 유명 뮤지션들도 즐겨 찾았습니다.

숙박: 테네시주 메μφ이스

**INSIDER
GUIDES**
from GoUSA





테네시주 멤피스

테네시주 멤피스 출발, 아칸소주 리틀록 도착

●●●●● 2시간 2분/221km

4일 차

리틀록에 도착한 후, 미국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시민권 기념지 중 하나인 리틀록 센트럴 고등학교 국립사적지 (Little Rock Central High School National Historic Site)에 방문해보세요. 1957년 9월 초, 아홉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이 모든 구성원이 백인이었던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주지사는 주방위군으로 하여금 학생들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개입했고, 학생들은 9월 25일 수백 명의 시위자들 사이를 지나 경호를 받으며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주 의사당의 반대편에서, 이들의 용기를 기리는 리틀록 나인 기념물(Little Rock Nine Memorial)을 구경해보세요. 아칸소주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 (NAACP,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의 회장이었던 데이지 베이트스 (Daisy Bates)는 리틀록에 있는 자신의 집을 학생들과 활동가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예약을 통해 개인적인 투어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랜드마크는 모자이크 템플러스 오브 아메리카(Mosaic Tempalrs of America, MTA)의 발상지인 모자이크 템플러스 문화 센터(Mosaic Templars Cultural Center)입니다. 1883년 노예 출신이었던 두 사람이 세운 MTA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질병, 사망, 장례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원래의 그랜드 템플(Grand Temple) 건물은 2005년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2008년 새로 지어진 문화 센터에서 셀프 가이드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숙박: 아칸소주 리틀록

아칸소주 리틀록 출발, 미시시피주 머니, 섬너 그리고 잭슨 도착

●●●●●●●●●● 4시간 16분/422km

5일 차

남동쪽으로 차를 몰아 미시시피주 머니(Money)로 향하세요. 이곳에 있는 브라이언트 그로서리 앤 미트 마켓 (Bryant's Grocery & Meat Market)의 잔해 중 남아 있는 것이라고 점포의 앞쪽밖에 없습니다. 이 상점은 1955년, 친척을 보러 이 지역에 왔던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의 14살 흑인 소년 에밋 틸(Emmett Till)이 사탕을 사러 방문했다가 상점 주인이었던 21세 백인 여성 캐롤린 브라이언트(Carolyn Bryant)를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고 비난받은 곳입니다. 에밋은 브라이언트의 남편과 그의 이복 형제에게 납치당했으며, 폭행당한 에밋의 시신은 탈러해차이강(Tallahatchie River)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에밋의 어머니는 이 잔혹한 살인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장례식에서 관 뚜껑을 열어두기를 고집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결국 미국 시민권 운동이 촉발되었습니다. 섬너(Sumner)에는 당시 살인 사건 재판이 열렸고 2명의 살인자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은 탈러해차이 법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2시간가량 남쪽으로 더 달려 잭슨으로 갑니다.

숙박: 미시시피주 잭슨



리틀록 센트럴 고등학교

6일 차

잭슨은 풍부한 인권 역사의 도시입니다. 2017년에 개관한 미시시피 시민권 박물관(Mississippi Civil Rights Museum)에서 미시시피주의 인권 운동 역사를 자세히 알아보며 여정을 시작합니다. 1963년 메드거 에버스(Medger Evers)가 자택에서 살해당했을 때 발견된 소총 등 유물과 인권 운동의 이모저모를 보여주는 영화도 감상해 보세요. 당시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NAACP)의 지부장이었던 그의 집은 현재 메드거 에버스의 집 박물관(Medgar Evers Home Museum)이 되었습니다. 잭슨 북쪽에는 투갈루 대

학(Tougaloo College)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흑인 대학이며 잭슨의 기업에 대한 보이콧,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 평화로운 시인 등으로 확대된 인권 운동의 중심지입니다. 라마르 스트리트(Lamar Street)에 있는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에서 1961년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인 27명의 승객이 체포된 사건은 자유의 기수 운동이 남부 전역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숙박: 미시시피주 잭슨

**INSIDER
GUIDES**
from GoUSA



잭슨 블루 프론트 카페

미시시피주 잭슨 출발, 앨라배마주 셀마와 몽고메리 도착

●●●●●●●●●● 3시간 59분/397km

7일 차

동쪽으로 3시간을 운전하면 1965년 흑인 참정권 쟁취를 위한 3번의 행진이 시작된 셀마에 도착합니다. 3월 7일 당시 참가자 600여 명은 공권력의 진압과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폭력에 무자비하게 당했습니다. 이를 후 인권 운동가 1명의 죽음까지 더해져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로 불렸던 행진은 수천 명의 지지자가 가세하며 셀마로 집결했습니다. 당시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전국적으로 행진 지지를 약속했고, 그해 흑인참정권을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하기에 이릅니다. 3월 21일 군 병력의 보호 아래 80번 국도(U.S. Route 80)를 따라 행진한 8,000명의 참가자들은 3일만에 마침내 몽고메리에 도착해 50,000명이 넘는 지지자들과 만납니다. 이 여정은 1966년에 국립역사트레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몽고메리는 1955년 용감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부당한 자리 양보를 거부함으로써 인종차별에 저항한 곳으로 대중에 알려졌고, 로자 파크스 박물관(Rosa Parks Museum)에는 1955년 당시 시내 버스가 말 없는 증인처럼 서 있습니다. 이후 몽고메리는 인권 운동의 선봉에 섰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조직하고 연설했던 텍스터 애비뉴 킹 메모리얼 침례교회(Dexter Avenue King Memorial Baptist Church)도 몽고메리에 있습니다. 교회 지하에는 몽고메리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하고 1968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킹 목사의 생애를 담은 벽화가 있습니다.

숙박: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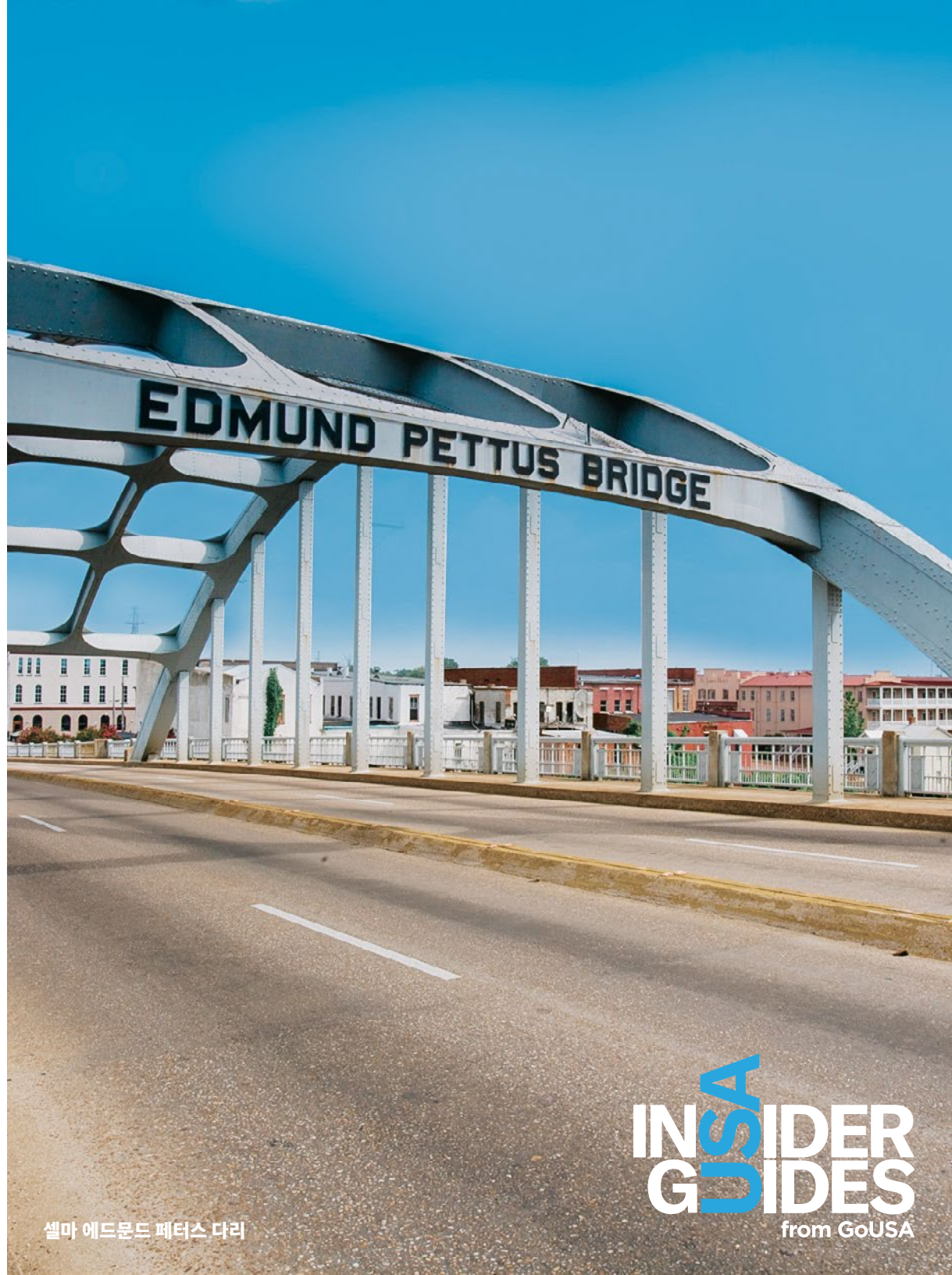
아칸소주 리틀록 출발, 미시시피주 머니, 섬너 그리고 잭슨 도착

●●●●●●●●●● 2시간 17분/260km

8일 차

몽고메리에서 동쪽 40분 거리에 있는 터스키기는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국 최초의 흑인 공군 조종사를 일컫는 터스키기 에어맨(Tuskegee Airmen)의 고향입니다. 1950년대 앨라배마주 흑인 참정권 운동가들의 회합 장소였던 버틀러 채플 AME 시온 교회(Butler Chapel AME Zion Church)를 찾아 교회 지하의 박물관 투어에도 참가해 보세요. 터스키기 역사 센터(Tuskegee History Center)는 인권 운동 역사와 다문화 뿌리를 잘 보여줍니다. 북동쪽으로 두 시간 운전하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출생지 애틀랜타에 도착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컬렉션과 더불어 현 시대 인권 이슈와 관련된 전시가 포함된 새로운 민권 및 인권센터(Center for Civil and Human Rights)에서 애틀랜타의 시민권 역사를 알아보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숙박: 조지아주 애틀랜타



셀마 에드문드 페터스 다리

9일 차

애틀랜타의 풍부한 인권 역사를 알아보는 여행은 전시관 및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생가가 있는 킹 센터와 인종차별이 철폐된 남부 최초의 소방서로 손꼽히는 6번 소방서(Fire Station No. 6)에서 출발합니다. 에버니저 침례교회(Ebenezer Baptist Church)에서 했던 킹 목사의 설교와 연설도 들어보고, ‘비홀드(Behold)’ 기념물이 있는 인근의 세계 평화 장미 정원(World Peace Rose Garden)과 반사 연못에서 고즈넉한 시간도 가져보세요. 불멸의 불꽃(Eternal Flame)과 마틴 루터 킹 목사 부부의 묘도 찾아보고, 국제 인권 명예의 전당(International Civil Rights Hall of Fame)에서 인권 지도자와 선구자들의 발자취도 느껴보세요. 스위트 오번 지구(Sweet Auburn District)와 APEX 박물관(APEX Museum)을 찾아 비디오, 사진, 유물을 통해 미국 흑인 역사도 알아보세요.

숙박: 조지아주 애틀랜타

조지아주 애틀랜타 출발, 앨라배마주의 애니스턴과 버밍햄 도착

● ● ● ● ● 2시간 9분/237km

10일 차

자유의 기수 운동의 일환으로 1961년 인종차별 철폐를 외치며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탔던 인종평등회의 (Congress of Racial Equality, CORE)의 발자취를 쫓아 애틀랜타를 떠나 서쪽으로 달립니다. 앨라배마주 애니스턴에서는 폭도들이 버스를 공격하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어 마을까지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버스는 화염에 휩싸였고 도망가던 승객들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 사건을 기록한 자유의 기수 국립 기념물(Freedom Riders National Monument)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쪽 약 1시간 거리에는 버밍햄 캠페인 (Birmingham Campaign)으로 더 잘 알려진 인권 운동 프로젝트 C(Project C)의 도시 버밍햄이 있습니다. 런치 카운터 sit-in, 보이콧과 행진은 비폭력 저항이었지만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고, 결국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인권 운동의 전환

점이 되었습니다. 버밍햄 인권 연구소(Birmingham Civil Rights Institute)에서 인종 평등을 위한 저항에서 버밍햄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세요. 길 건너편 켈리 잉그램 공원(Kelly Ingram Park)에 있는 소방 호스와 경찰견들은 평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공격 무기였지만, 지금 이 공원은 동상과 기념물을 세워 인권 운동 지도자를 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 2017년 인근에 인권 국립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애팔래치아산맥(Appalachians) 기슭에 자리해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기에 좋은 것은 물론 다양한 맛집과 엔터테인먼트 명소도 많습니다.

숙박: 앨라배마주 버밍햄



앨라배마주 버밍햄 출발, 앨라배마주 스코츠보로와 테네시주 내슈빌 도착

● ● ● ● ● ● 2시간 40분/308km

11일 차

다음 목적지 스코츠보로는 북쪽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스코츠보로는 1931년 테네시주 채터누가에서 멤피스로 가는 남부 철도 화물 열차에 탔던 9명의 흑인 청소년들이 2명의 백인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누명을 쓴 사건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후 계속 이어진 재판, 판결, 재심, 평결, 상소와 소년들에 대한 가혹 행위는 사법 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33년 된 구 조이스 채플 연합 감리 교회(Joyce Chapel United Methodist Church)에

있는 스코츠보로 소년 박물관 및 문화 센터(Scottsboro Boys Museum & Cultural Center)를 찾아 인권 운동을 촉발시킨 세기의 재판에 관한 문서와 자료들을 둘러보세요. 3시간 동안 차를 달려 출발지인 내슈빌로 돌아가면 장장 2주에 걸친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숙박: 테네시주 내슈빌

INSIDER
GUIDES
from GoUSA



앨라배마주 버밍햄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GoUSA.or.kr을 방문해보세요.